

'81년도 3/4분기 축산관측

육계 비수요기 사육수수 증가로 하락세 우려

〈축산협동조합중앙회 조사부〉

개 황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7월의 경기예고 지표가 6월에 이어 1.0을 가르키고있어 10월의 일반경기는 회복국면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일반경기가 이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축산물 수요는 전년 동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수요는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는 가을, 겨울철이 성수기이므로 9월이후 내년 2, 3월까지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쇠고기 공급 역시 가을, 겨울철에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수입육방출을 고려한다면 연말까지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 공급 또한 6월이후 사육두수의 증가추세로 보아 큰 물량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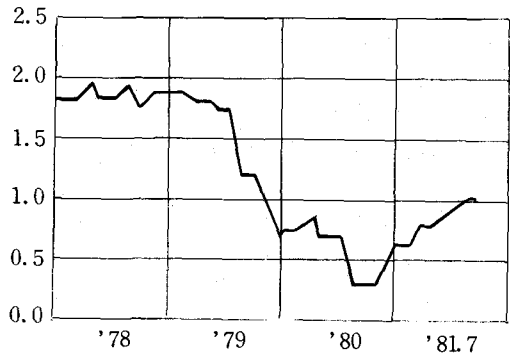
이같은 수급전망으로 보아 앞으로 쇠고기 가격은 9월수준의 안정세가 연말까지 유지되다가 내년초부터 다소 상승세가 예상된다.

돼지고기 가격은 9월이후 내년 3월까지 강보합세가 유지, 현재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 이후 내년 3월까지의 육계경기는 비수요기에 비해 사육수수의 상대적인 과다로 9월 이후 서서히 후퇴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동안 계란 가격은 가을철(9, 10월)은 성수기로 좋은 가격이 형성되다가 겨울철(11~2월)에는 비수요기로 약간의 약세가 예상된다.

경기 예고 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산 란 계

사육전망

80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밀어닥친 채란

업계의 불황으로 산란계 수수는 작년 9월 이후 금년 3월까지 서서히 줄어들다가 5~6월 계란값이 회복 기미를 보이자 6월에는 3월보다 3%정도 증가된 2천 6 백 53만 수로 늘어났다.

한편 9~10월간은 계란 성수기로 가격상승을 기대, 9월의 산란계 수수는 6월보다 약간 많은 2천 8 백만 수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나 내년 3월까지는 9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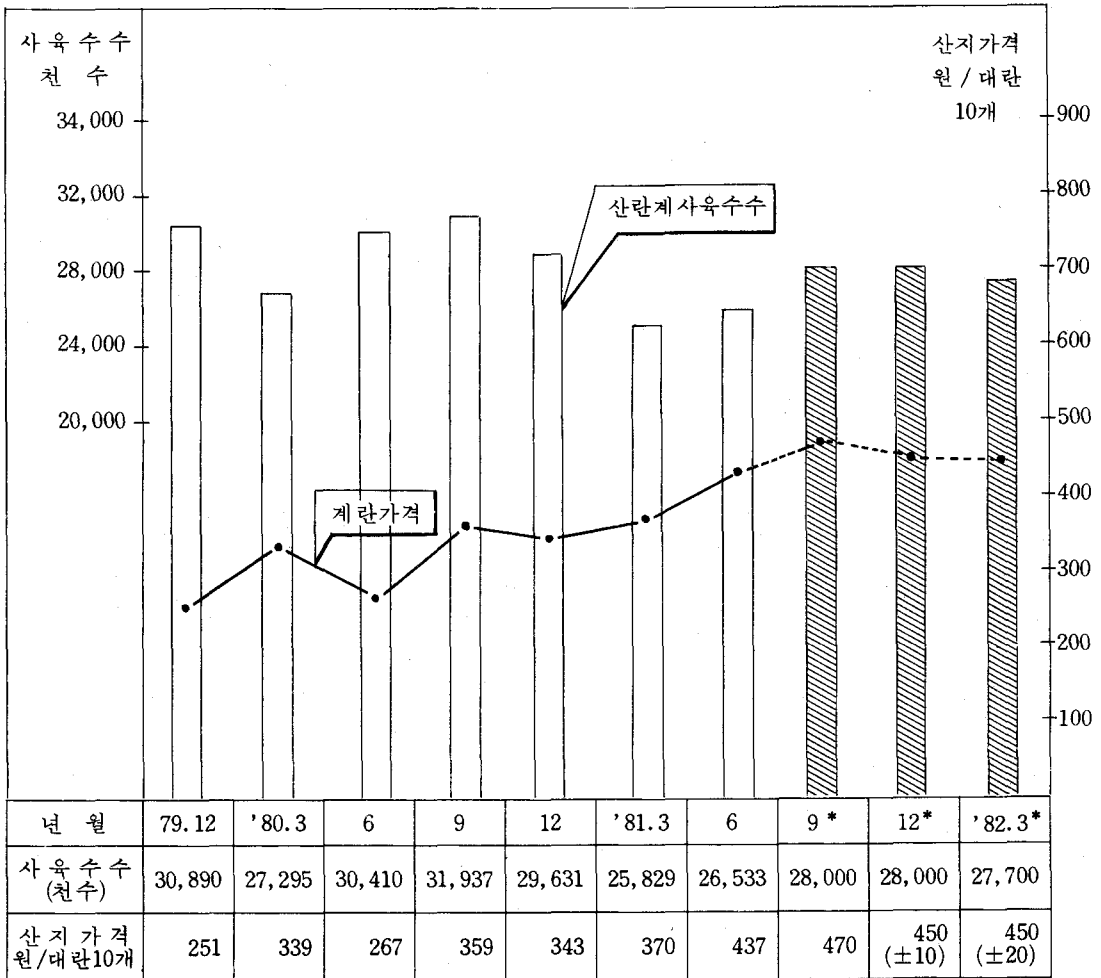
수급 및 가격 전망

계란 수요는 봄, 가을에 늘어나고 여름, 겨울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같은 수요추세에 따라 계란가격도 대체로 봄, 가을에는 강세를 여름과 겨울에는 약세를 띄우는 것이 대체적인 변동 추세이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채란 업계는 긴 불황을 겪었는데 이는 일반경기가 침체된 데에도 불구하고 80년 하반기 산란계 수수는 예년보다 많았던 데 기인되고 있다.

산란계사육수수와 계란가격동향



* 관측치

다행히도 금년들어 과감한 노계도태와 입추조절로 계란 가격은 5월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여름철 한때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8월 하순부터 상승세를 띄우고 있다.

앞으로 9~10월간은 성수기로 대란 10개당 470원(산지가격)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겨울철(11~2월)에는 다소 약세를 띄우겠으나 금년 가을에 상당한 노계가 도태될 것으로 보여져 9월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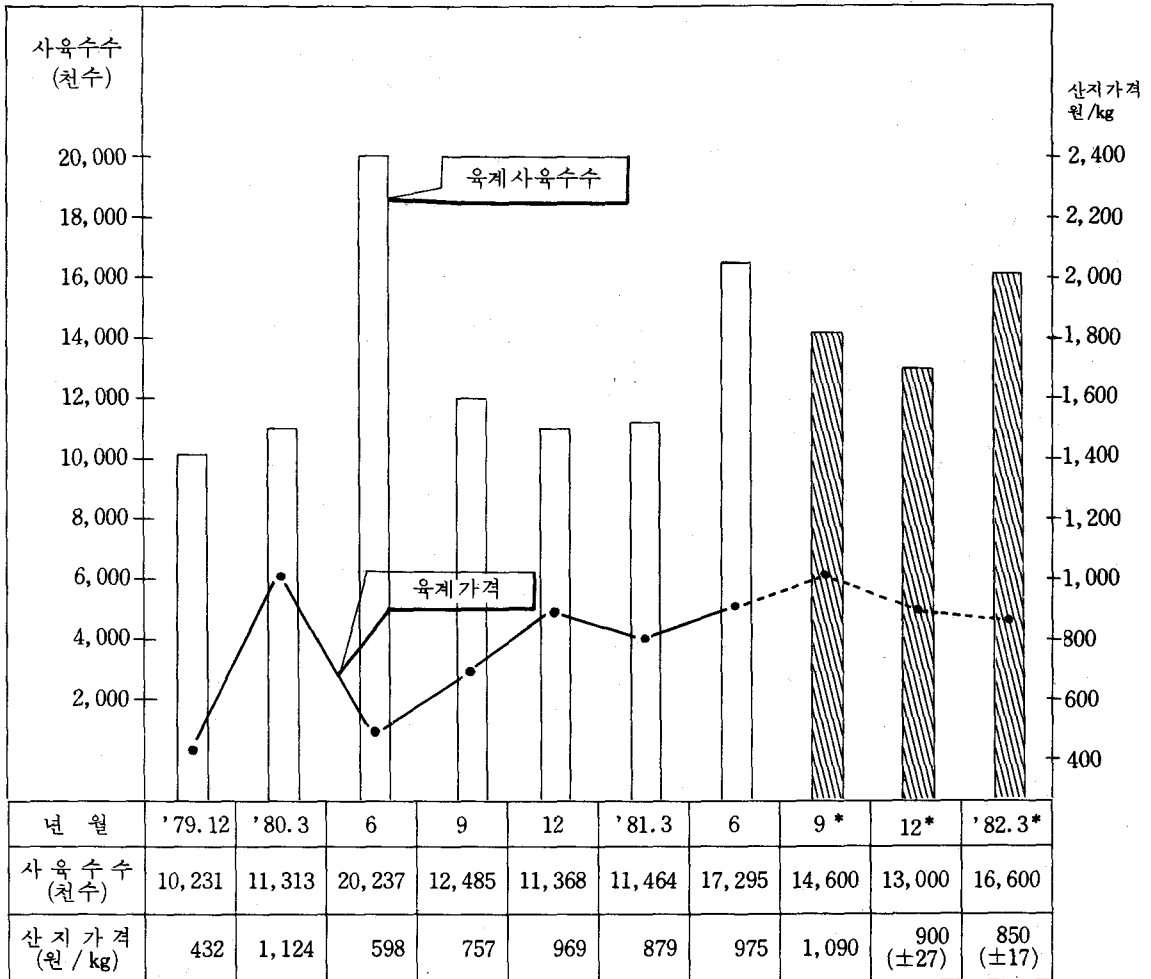
육 계

사육전망

육계는 계절 식품으로 그 사육수수 또한 성수기인 여름철을 정점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같은 육계 사육수수의 변동 양상은 금년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앞으로 12월까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 여름철의 폭심한 더위로 육계값이 호황을 보인 여파로 9

육계 사육수수와 가격동향



* 관측치

월, 12월 육계수수는 1천 4백60만수, 1천 3백만 수 수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1천 6백60만수로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육계가 사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같은 증가추세는 금년 상반기(1~6월)에 육계용 종계의 초생추 입식이 예년없이 늘어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육계사육은 50일 정도의 단기 사육으로 상품출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 사육자들의 투기 사육이 성행하고 있어 과잉생산 가격폭락의 위험성이 크므로 12월 이후의 입추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수급 및 가격전망

육계소비는 여름철이 최성수기 그밖의 계절은 일반적으로 소비가 한산한 계절 식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급 또한 육계소비의 계절성에 맞추어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계생산은 입추후 50여일이면 출하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큰 시설이나 자금이 없이도 사육이 가능한 점 때문에 영세 양계업자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과잉 과소의 수급 불균형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육계수급의 특성 때문에 육계가격은 연중 가격 진폭이 크고 변동이 잦은 편인데 금년은 특히 봄, 여름철 기온이 높아 육계 수요가 증가, 호황을 누리었다.

앞으로 10월 이후 내년 2월까지의 육계의 비수요기인데도 육계 사육수수가 예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육계가격이 하락세를 띄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돼 지

사육전망

79년 6월 이후 금년 3월까지 1년반동안 감

소추세를 보여오던 돼지 사육 두수는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 6월말에는 3월보다 약 9%가 증가된 1백83만 3천두를 나타냈다.

앞으로 12월말에는 2백14만두 수준, 내년 3월에는 2백20만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적정 두수인 2백40~2백50만두 수준에는 다소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80년 후반부터 1년이상 양돈의 호경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은 79년 하반기의 양돈불황이 흑심했던 데다가 대략 32개월 주기로 반복되는 양돈경기 변동에 비추어볼 때 금년 하반기에 불황이 도래하지 않을까하는 지나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돼지는 번식력이 강해 항상 과잉생산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6월에는 적정 모돈 수인 30만두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양돈 경기의 안정을 위해 모돈 수 만큼은 전체적으로 6월 수준에서 10% 이상 늘리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이다.

수급 및 가격전망

일반적으로 가을~겨울동안은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계절이나 공급량 역시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돼지가격은 9월 이후 명년 3월까지 강보합세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돼지고기 가격전망은 앞으로 일반경기의 회복 정도, 육류가격 정책의 변경,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비대체 운동 전개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가격 상승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적어도 9월 수준의 안정세가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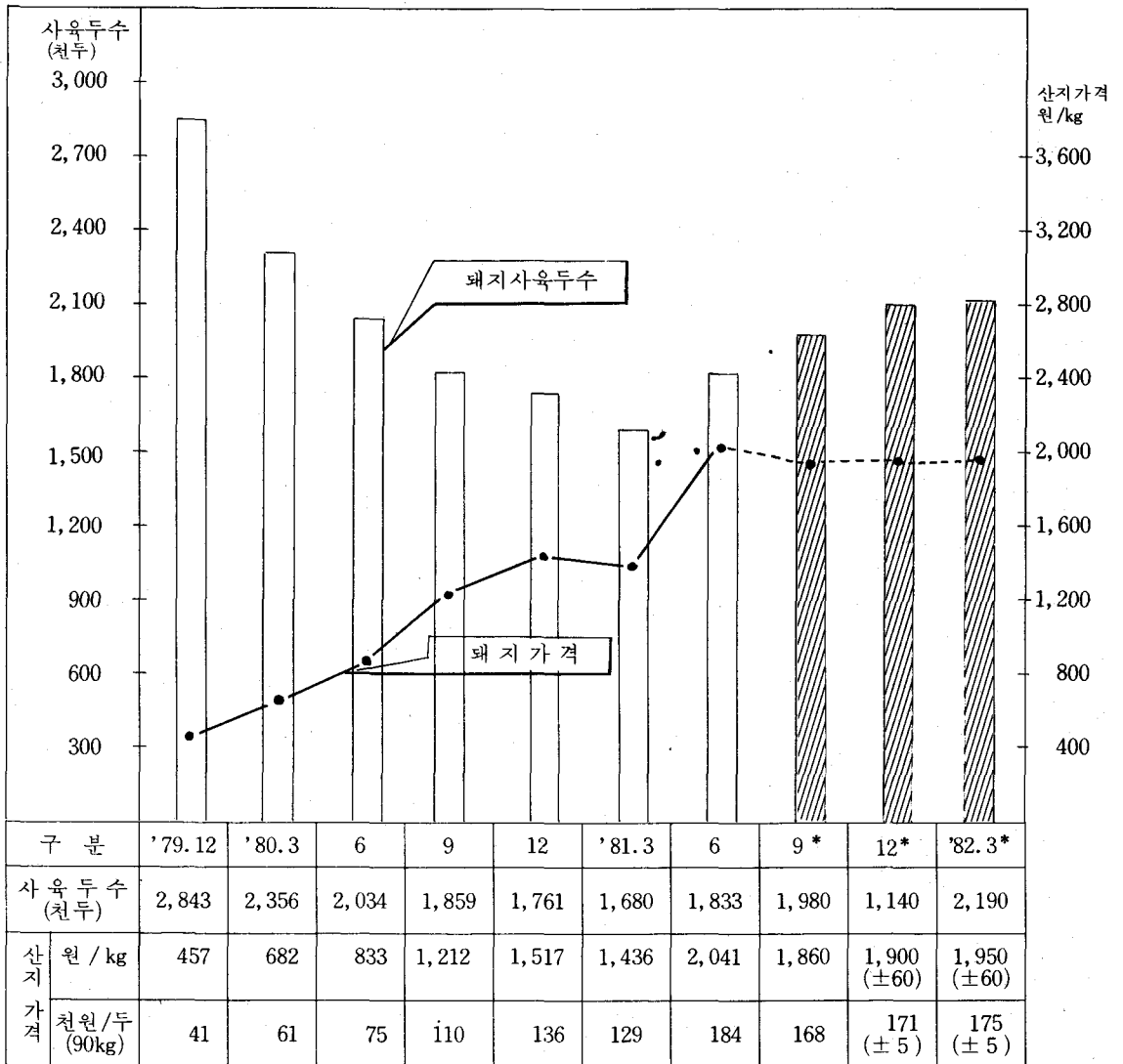
최근 한우사육 동향을 보면 79년 6월말 한

때 1백73만3천두 까지 증가되었다가 그후 계속 감소되어 81년 들어서는 6월말 현재 전년말보다 4.3%가 줄은 1백32만두를 기록하고 있다.

봄철에 주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므로 6월 한우두수는 전년 12월에 비해 항상 많은 것이 일반적인 변동 양상인데 80년 이후에는 6월에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80년 이후 불경기와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81년 전체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쇠고기 수입제한으로 수입육 방출이 크게 줄어든 반면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수요에 비해 절대 사육두수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작년과 금년의 6월말 사육두수가 전년말에 비해 줄어든 것은 별도의

돼지 사육두수와 가격동향



* 관측치

증식 대책이 없는한 어쩔 수 없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약 11만톤 (약 70만두분)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쇠고기만을 소비한다하더라도 약 1백90만~2백만두의 소 (한우+젖소+육우)가 있어야 하며 한우만도 80년 사육구성비로 보아 1백60~1백68만두 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절대두수가 부족한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앞으로 한우증식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적정량의 쇠고기 또는 육우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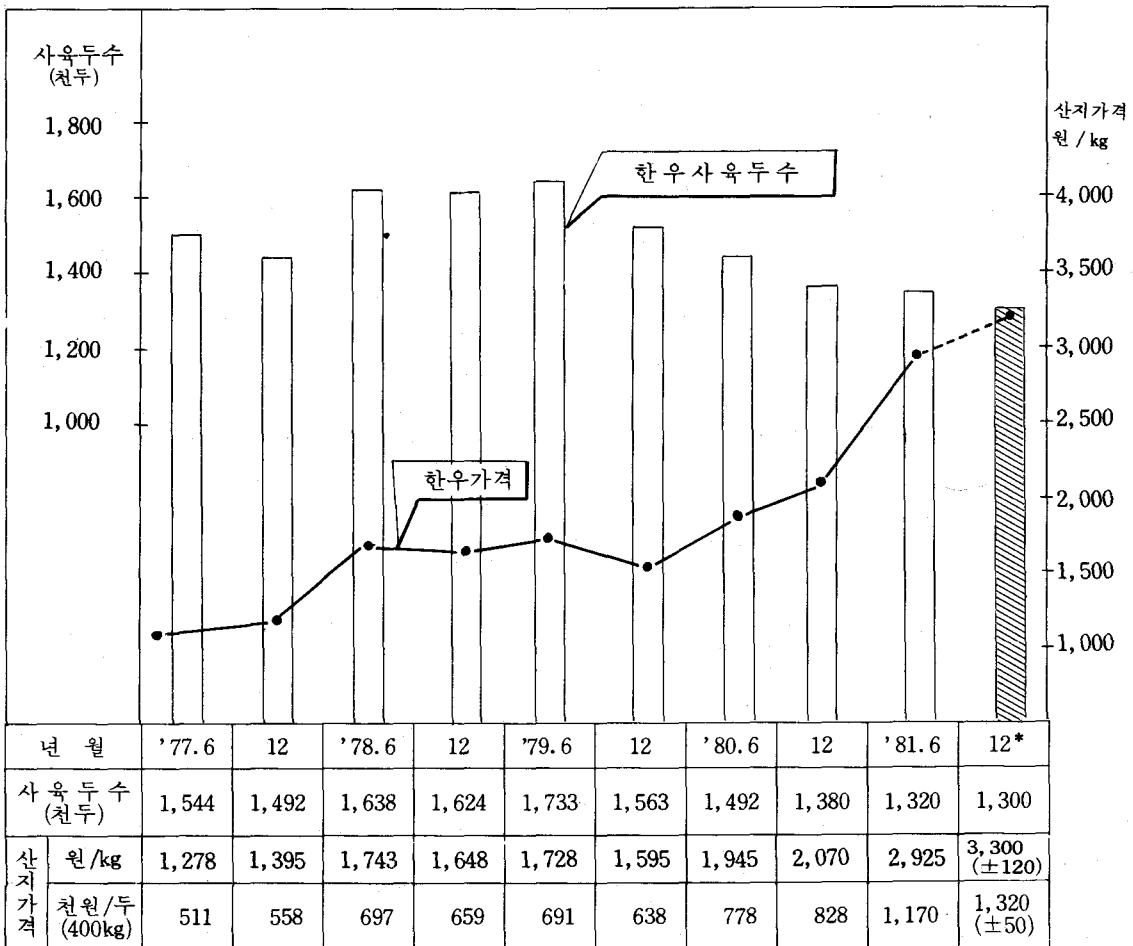
금년 하반기부터 적정량의 수입육 방출과 쇠고기 가격 자율화, 육우도입 등 한우증식을 위한 중요시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금년말에는 그간의 감소 추세가 둔화돼 1백 30만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한우증식 시책이 계속될 경우 2~3년 후부터는 서서히 증가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수급 및 가격전망

금년 상반기 (1~6월)중 쇠고기 소비 및 공급물량은 80년도 상반기에 비해 적었으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80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한우출하량이 줄어들었는

한우 사육두수와 가격동향



* 관측치

미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단위 : 백만M/T

구분 년도	공 급				소 비			년 말 재 고
	년초재고	생 산	수 입	합 계	국내소비	수 출	합 계	
1978/'79	28.2	184.6	0.03	212.8	125.6	54.2	179.8	33.1
1979/'80	33.1	201.6	0.03	234.8	131.9	61.8	193.7	41.1
1980/'81	41.1	168.8	0.02	209.9	123.2	64.8	188.0	22.0
1981/'82	22.0	196.2	0.02	218.2	125.5	64.8	190.3	28.0

주 : * 예측치

데도 최고기의 전체 소비량이 늘고 있는 것은 수입육 방출량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되고 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최고기 소비가 느는 계절이고 특히 금년 4/4분기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게되므로 연말연시와 구정을 전후해서는 작년 동기에 비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철에는 최고기 공급량 역시 늘어나는 것이 그간의 추세이었고 비축 최고기의 방출을 고려한다면 연말연시 및 구정 성수기의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같은 최고기의 수급전망을 통해 볼 때 9월 이후 내년 1월까지의 9월 수준 (400kg 황소 1두당 1백33만원)과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월 구정기에는 한우고기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달이므로 한우 고기 값이 다소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동향

최근 미농무성에서 발표한 금년도 세계사료곡물 생산량은 기후조건의 호조로 작년보다 7%가 증가한 7억 7천 6백60만M/T으로 예측하고 향후 국제 사료곡물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사료곡물인 옥수수의 주산지인 미국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식

부면적이 늘어나고 작황이 좋아 전년도보다 16% 가량 늘어난 1억 9천 6백만M/T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농무성은 '81/'82 곡물년도 ('81.10.1~'82.9.30)의 옥수수 가격은 미국 현지 농장가격으로 톤당 108~132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80/'81 곡물년도 ('80.10.1~'81.9.30)연평균 예상가격인 톤당 126달러에 비하면 다소 약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 곤란시
모든 계란을
팔아드립니다

계란 위탁판매
계란 판매알선

<연락처> ☎ 612-4614
612-0794

김 명 식